

# [업계소식]

## ◆ 영림목재 40주년, “100년을 위해 뛰자”



지난 11월 16일 영림목재(대표 이경호)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과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

영림목재의 4개 계열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이경호 대표는 장기 근속 사원 포상을 통해 임직원을 독려했다. 이경호 대표는 기념사에서 “계열사 간의 유대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변화와 개선을 통해 미래 가치를 창조하자”며 “40주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위해 노력하자고”고 당부했다.

또한 창립 40주년을 맞아 11월 11일 인천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이경호 대표는 미래를 위해 뛰어 나가는 마음가짐으로 직원들과 함께 마라톤을 이어나갔다.

## ◆ 김인호 대표이사 (주) 이 ·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등지를 트다

한국파렛트플(주)의 대표이사로 한국의 물류산업을 이끌어 오던 김인호 대표이사가 지난 12월 1일 (주)이 · 라이브러리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다.

(주)이 · 라이브러리는 영림목재(주)의 계열사로 목재 제품을 이용한 고급가구를 제작 · 생산하는 업체로 질적 우수화 · 고급화로 승부하는 우수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김인호 대표이사의 행보에 주목되며, (주)이 · 라이브러리는 한단계 더욱 발전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 이견산업, 올해 80억 순이익 전망

생산 공정 칠레이전, 구조조정, 환율급등 원인

이견산업이 올해 말까지 당기순이익 80억원의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견산업 재무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1천918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영업이익 141억원, 당기순이익 80억원이 발생 된다” 고 밝혔다. 이 근거로 사업부 구조조정, 거래처와의 영업상황, 진행 중인 수주현황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내부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내외 영업상황 및 여건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춘만 사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원목을 깎아 반제품으로 만드는 전 공정을 칠레 현지 법인으로 떼어내면서 국내로 들여오는 운반비가 m<sup>2</sup>당 70달러에서 3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며 “국내 합판 생산 인원도 280명에서 90명까지 줄어 생산 원가는 푹 떨어졌다” 고 밝혔다. 또 이춘만 사장은 “지난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합판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생겼고, 금융위기로 중소형 합판업체가 줄도산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에 머물던 합판 사업 영업이익률이 8월부터 12~13%까지 치솟아 올해 연간 마진율이 8~9%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 ◆ 이견산업, 솔로몬 원목 중국과 베트남 등에 수출

이견산업이 솔로몬 조림지에서 생산된 원목(유칼립투스)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아가 2-3년 후 본격적인 원목생산에 돌입하게 되면서

추가생산이 가능하며 이들 원목 일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 수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출된 원목은 베트남에서는 정원가구용으로, 중국에서는 합판제조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솔로몬에는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하는 조림지에서 연간 국내 활엽수 총 수입물량인 약 67만㎡의 약 30%에 해당하는 20만㎡의 원목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된 원목은 회사 자체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 목재는 수출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 ◆ '09년 '우수 화물운수업체' 9개사 인증

용마로지스, 대신정기화물자동차, KGB택배 3개사 AA등급

국토해양부는 '09년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심사를 실시한 결과, 용마로지스(주),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KGB택배 등 9개사를 인증업체로 선정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응모한 19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AAA등급은 없으며 용마로지스(주),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KGB택배(주) 등 3개 업체가 AA등급을 받았다. 또한 세아로지스(주), GS그린택(주), M&M통운(주), SH로지스틱스(주), 세창종합운수(주), 이그린하나물류(주) 등 6개 업체가 A등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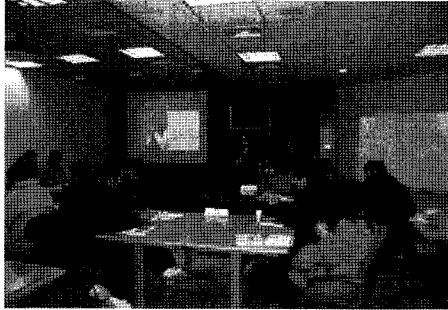
이로써 2008년 이후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26개 업체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제는 운송업체의 경영능력에 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직영차량 보유비율, 직접운송비율 등을 평가하여 다단계, 지입제 등으로 낙후된 화물운송시장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용마로지스 영업능력향상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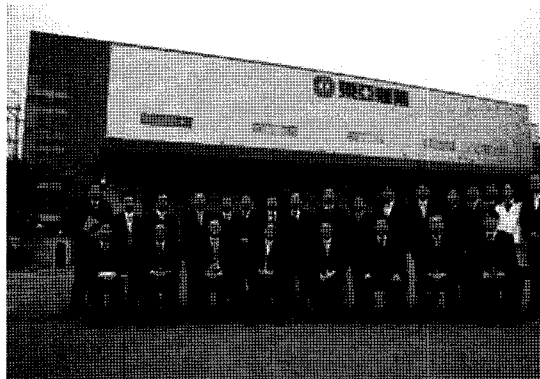
2009년 YSIP 영업관련 자체과정인 <영업능력향상과정>이 지난 12월 5일~12일 매주 토요일에 동아제약 IT센터내 교육장에서 실시되었다.

<영업능력향상 과정>은 영업실무자들의 영업능력 증대 및 영업 Skill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총 19명이 교육을 받고 모두 수료하였다.



이번 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집중적으로 협상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Program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업현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 동아제약-용마로지스 물류센터 현장 방문



지난 2009년 11월27일(금) 동아제약 경영진의 공도,안성물류센터 방문이 있었다.

1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물류현장 방문에는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용마로지스 이원희 대표이사과 임원진이 함께 하였다.

이번 방문은 새롭게 오픈된 동아제약 공도물류센터에 대한 물류현장 방문으로 랙설비 및 3방향지게차 시현, kGSP 창고, 유통가공 등의 센터운영 현황소개 및 용마로지스 동아제약팀의 업무소개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용마로지스 안성물류센터를 방문하

여 센터현황 및 자동 분류기 가동 시현, 3PL 재고관리 및 창고 운영현황 등의 현장견학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모기업이자 화주기업인 동아제약에 물류에 대한 관심 증대와 효과적인 물류관리를 통해 양사가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 ◆ 물류공동화 실시 업체... 2.4%에 불과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우리나라 제조·무역·유통업체 등 화주기업들의 물류공동화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간 공동수배송, 공동보관, 공동구입, 공동회수 등의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 업체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무작위로 추출한 회원사 8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물류공동화를 검토 중인 업체는 3.4%,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업체는 23.2%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실시할 경우 물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도로혼잡비용 감소, 이산화탄소 감소를 통한 녹색물류 실현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물류공동화후 참여업체들은 평균 11.2%의 물류비 절감을 이룬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무역은 우리 기업들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편인 것으로 보여 화주기업 중 물류공동화를 통한 성공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추진

수출입 컨테이너 흐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무선인식(RFID) 기반의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 RFID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의 흐름 관리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의 일환으로 RFID 기반 물류거점정

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단계 사업을 통해 의왕컨테이너기지(ICD), 부산항만, 광양항만 톨게이트 11개소에 화물차량 자동인식용 RFID를 설치했다.

올해는 인천·평택·군산·울산·마산 항만과 공항을 포함한 서울권 톨게이트 12개소의 화물차로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각 거점의 차량 추적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해 다양한 물류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물류거점정보시스템(ULTS)을 고도화하고 이의 운영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추적정보를 관련 업계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물류주체간 정보연계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항·항만을 거쳐 철도·육로를 이용해 내륙 화물기지 및 창고로 컨테이너가 운반되면서 관련 정보가 단절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열려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와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부의 주최로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1월 5일 과천의 그레이스호텔에서 열렸다.

포장폐기물의 원천감량을 통한 친환경포장의 실현을 위해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가 환경자원공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과류, 화장품류 및 완구류의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마련 중인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관련 업계, 포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대기업 위주라서 중소기업이 많은 포장 업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의견과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에 머물지 않고, 법적인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등을 나타내며, “아직 안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니 보다 업계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가이드라인으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물류비 걱정 뚫!

남동공동물류센터 착공, 수요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 계획

우리나라 최대 중소기업 집적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에 공동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입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11월 30일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현장에서 ‘남동공동물류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착수했다. 착공을 시작한 남동공동물류센터는 사업이 113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5,148㎡ 에 연면적 13,903㎡의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완공예정일은 2010년 9월이며 대형 주차시설과 물류창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쾌적한 쉼터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남동산업단지는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공동물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었지만 입주업체들의 개별적인 물류활동으로 인해 물류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남동물류센터가 완공 되면 일반 식음료, 섬유 화물과 목재, 가구, 화학제품까지 보관이 가능해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비용절감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인천항, 인천공항, 제 2경인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교통망도 인접해 있어 입지여건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민국 물류선진화 촉진대회 개최

물류대상시상식 등 다양한 물류주간행사 진행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지난 11월 2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09 대한민국 물류선진화 촉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 동안 한국물류대상 시상식, 글로벌물류혁신컨퍼런스, 글로벌SCM석학초청 특별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섬유센터 17층에서 ‘제17회 글로벌 물류혁신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서병륜)는 SCM 분야의 글로벌



벌석학으로 존경받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램버트 교수를 초빙하여, 글로벌 SCM에 대한 최근 동향과 이슈를 국내 물류관계자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연구계 등 전 산업분야의 관계자에게도 전달하여 호평을 받았다.

컨퍼런스를 준비한 서병륜 조직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 한국통합물류협회-한국물가협회 MOU 체결

물류비, 원가 등 기초적 통계조사 마련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와 (사)한국물가협회(회장 김철운)은 지난 12월 1일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물류비 DB구축과 원가조사를 추진하고자 MOU를 체결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사)한국물가협회는 이번 MOU를 통해 앞으로 △물류 산업분야의 각종 조사, 연구, 분석을 위한 상호 협력 △물류비 및 각종 운임요금 원가 조사를 위한 상호 협력 △물류 관련 정보의 교환 및 세미나, 설명회 공동 개최 등을 위한 상호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해외의 다양한 경제분야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방안 모색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양 기관의 관심사에 관한 협력 활동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 ◆ 물류전문가 맵 작성, 정보 교류 통해 상호 협력 기대

물류컨설턴트포럼 송년의 밤 개최



지난 12월 16일 저녁 7시 사당동 신세대웨딩홀에서 ‘물류컨설턴트포럼’ 송년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컨설턴트양성과정의 지도교수인 물류기술연구원의 윤의식 부원장과 물류산업 연구원의 임종길 원장이 참석했으며 1기에서 9기까지 배출된 물류컨설턴트 중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송년 포럼에서는 물류전문컨설턴트 포럼내의 전문분야 파악하고 회원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물류전문가 맵을 작성했다. 차후 물류전문가 맵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포럼회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연 4회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는 물류컨설턴트 포럼은 영진로지스틱스의 이길환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류컨설턴트양성과정’을 수료한 수료자들이 모여 만든 대표적인 물류전문가 커뮤니티로 포럼의 회원들은 제조, 물류, 유통 기업의 대표이사에서부터 실무진 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 산림청, '목재산업 진흥법' 제정 본격추진

산림청, 융자지원확대·지원조건개선약속

펠릿에만 전념하던 산림청이 내년부터는 목재산업 진흥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혀 위축된 목재산업 기업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진선필 과장은 지난 11월3일 한국목재공학회가 주최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목재산업의 연계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 "금년까지는 정부의 관심을 얻을 수 있었던 펠릿 사업에 몰두했다면, 내년부터는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진과장은 목재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국내재공급확대△맛춤형 목재공급 △목제품 관리 강화 △목제품이용촉진△기후변화대응 시스템 확립△목재산업정책체계화 및 목재업계 지원강화를 내놓았다.

또한 목재공학회에서 마련한 '목재산업진흥법인'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목재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에는법을만들수있도록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진선필 과장은 "정부가 펠릿에 관심이 있을때 투자를 유도하지는 것이 산림청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펠릿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업무가 집중된 듯 하다"며 "내년부터는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법안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펠릿사업과 함께 동반상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 제주도 물류 발전 '물류+관광+금융' 클러스터 제안

제주지역 물류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서 다양한 의견 도출



제주지역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물류신문 등이 후원한 '제주지역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12월 18일 제주미래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제주지역 특성에 부합한 물류산업 특화전략, 제주지역 국제물류 클러스터 전략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에는 일본의 하세가와 마사유키(일본통운종합연구소 고문), 중국의 박인성(중국 절강대학 교수), 싱가포르의 호세통존(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등 국제 물류 전문가들이 참가해 국제물류와 제주물류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물류신문 장대용 발행인은 "DB의 올바른 구축과 활용 프레임을 구축할 것과 현장실태와 기업들 종사자들의 의견이 '제주자치도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국토부,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에서의 사고 예방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업계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물류창고는 안전관리 소홀로 26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368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창고에서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업계 및 관계기관 등에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하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http://www.mltm.go.kr))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nlic.go.kr](http://www.nlic.go.kr))에 등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안전관리 매뉴얼이 물류현장에서 보다 유용한 안전관리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매뉴얼이 물류창고의 안전교육 지침서로 활용됨으로써 물류창고에서 발생하는 충돌, 추락 및 전도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빈도를 낮추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 한국무역협회, 국내 최초 아세안 물류포털 개설

태국 등 5개국 물류정보 제공

한국무역협회(회장:사공일) 국제물류하주지원단은 11월 23일 국내 유일의 아세안 전문 물류포털(www.aseanlogis.net)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국내에 아세안 물류관련 정보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 무역협회가 아세안 국가 중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5개국의 물류정보 포털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포털 사이트의 주요 내용 구성은 아세안 지역 물류개요, 주요산업 동향 및 경제전망, 물류통계, 물류정책 및 관련 법규, 물류인프라 시설현황 및 개발계획, 물류서비스 부문별 자유화 로드맵, 메콩강 유역 투자개발사업, 권역별 우리나라 진출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아세안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및 관계자에게 아세안국가별 다양한 물류정보를 제공하며, 직관적인 디자인과 신속한 업데이트 표시로 사용자가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 물류전문가 150인 “올해 물류산업 11.8% 성장”

대한상의·물류신문 공동조사 내용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물류신문사가 최근 공동으로 물류업계 CEO·학계·연구소 등 전문가 150인을 대상으로 ‘2010년 물류산업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물류산업은 평균 1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2.9%)에 비해 8.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본격적인 회복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세계 경기 안정화, 소비심리 회복, 제조업 생산량 증가, 수출입 호조 등으로 물류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특히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해운업계는 수출입 물동량

증가, 용선수요 증가 등으로 시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사에 응했던 물류업계 CEO 82.9% 역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확장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17.1%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 한해 가장 호황이 예상되는 물류업종으로는 전문가들의 32.4%가 '항공업'을 꼽았다. 이어 '택배업' (31.8%), '해운업' (20.9%), '창고 및 기타서비스업' (8.1%), '육상운송업' (6.8%) 순으로 집계됐다.

2010년 물류시장의 주요 이슈로는 '녹색물류' (24.5%)가 단연 1위를 기록하였고, '법·제도 변화' (11.0%), '불황극복' (9.7%), '규제개혁' (9.2%), '글로벌 SCM' (9.2%) 등이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 (24.8%), '산업내 규제개혁' (19.4%), '물류산업 정보화 및 물류기술 표준화' (13.2%), '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 (10.3%), '공동물류센터 건립' (10.3%)등을 꼽았다.